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⑱

복을 상징하는 '박쥐'

얼마 전 신부가 흡혈귀가 되는 내용의 '박쥐'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배트맨 시리즈'는 이미 유명한 오락영화로 자리 잡았고, 영화 '드라큐라'도 박쥐를 연상시키는 망토를 두른 드라큐라 백작을 주인공을 등장시켜 오랫동안 흡혈귀 계열의 공포영화로 전 세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양에서는 박쥐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듯 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박쥐를 혐오동물의 부류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박쥐는 우리가 단순히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려 단정지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는 1000종이 넘는 박쥐의 종류 가운데 피를 먹는 흡혈박쥐는 불과 세 종류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이 세 종류의 박쥐들은 소나 말, 염소의 피를 먹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박쥐들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6200만년전 땅두더지의 일종에서 시작해 혁명적인 진화를 거친 박쥐는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 중 유일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탁월한 존재이다. 박쥐는 땅과 속세(俗世)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와 초월의 경지를 상징하는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해탈의 상징인 것이다.

아름답고 유려한 허리선을 자랑하는 청화백자 편복문 사발(사진)은 고려 백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중국 원, 명대의 희고 단단한 경질백자의 영향을 받아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었던 분원(分院)에서 만들어진 조선조 최고의 고급 백자 중 하나이다.

사실 편복문(蝙蝠紋, 박쥐문양)은 중국 상고대에 도교에서 비롯된 신선사상과 음양오행설을 가미하면서 불로장생하고자 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다 이 전통 문양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특히 궁궐과 왕실의 사랑을 받아 널리 민간에 까지 퍼지게 됐다. 그래서 한국 대부분의 민속품이나 자료들에서 박쥐문양이 여러 가지 형태를 거듭하면서 시문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주로 복(福)자와 같은 음을 지닌 박쥐를 뜻하는 복(蝠)은 수복병의 글씨를 시작해 갖가지 의복, 가구장식, 식기, 떡살, 능화판(菱花板)등의 용기류, 방석까지 사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 박쥐문양을 사용하는 곳은 사실 쌍가락지이다. 조선조의 여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이 장신구는 두터운 두 개의 은으로 만든 가락지 두 개에 박쥐문양을 음각으로 조각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부유한 양반가에서 은장이를 불러다가 숙식과 쌀 5~6가마를 제공하면서 사랑채에서 재료를 주고 주문해 만든 경우도 있었다.



청화백자편복문문(조선19세기). 조선조 최고의 고급 백자 중 하나이다. 자유롭게 삼단으로 날아다니는 박쥐들의 모습과 생동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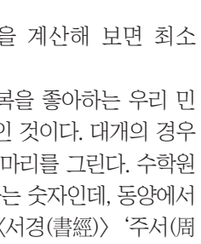
땅의 한계를 극복한 해탈의 상징
중국 도교에서는 신선·불로장생 상징
우리나라에 도입돼 왕실 · 민간에 전파

요즘 시세를 따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최소 80~100만원에 이른다.

복을 상징하는 박쥐는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문양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박쥐를 시문할 때는 다섯 마리를 그린다. 수학원론에서는 5는 승리를 뜻하는 숫자인데, 동양에서는 유학(儒學)의 경전인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편에서 오복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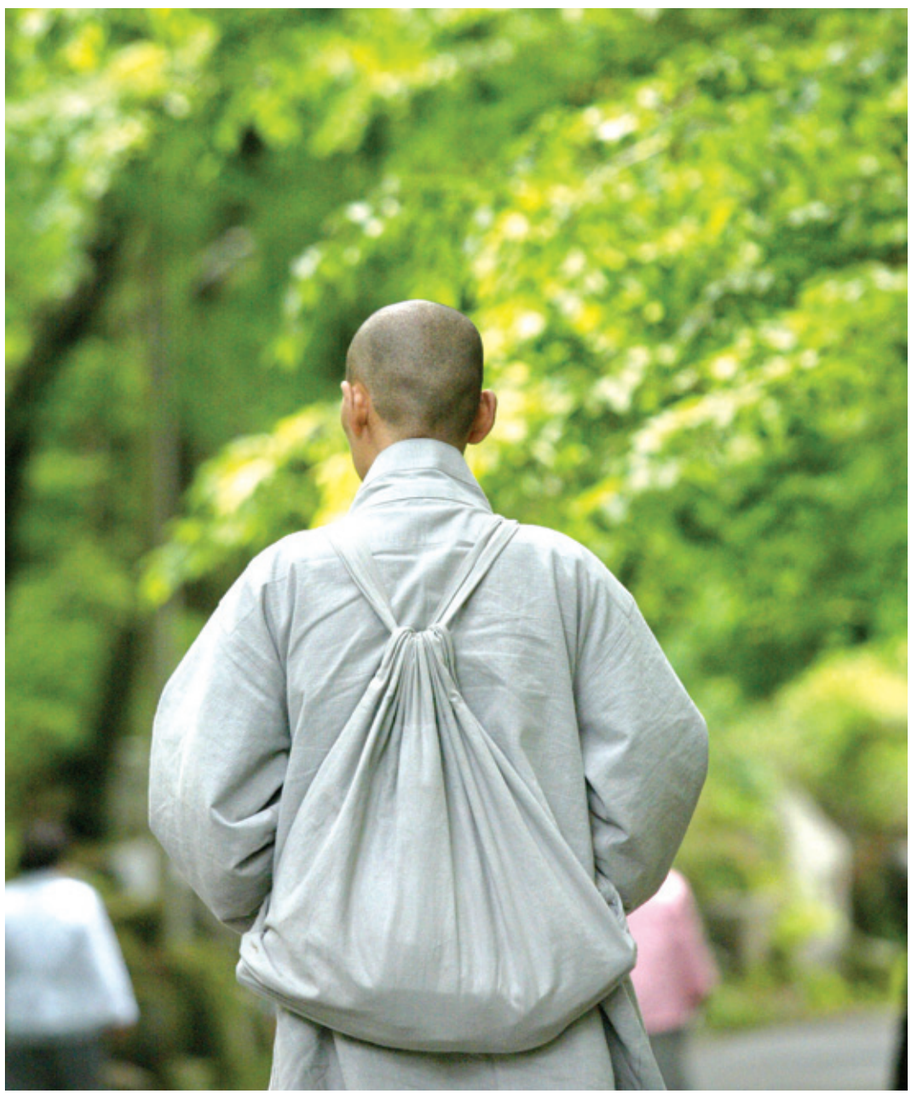
오복의 수(壽)는 장수(長壽)하는 것, 부(富)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강녕(康寧)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 유호덕(攸好德)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고종명(考終命)은 천명(天命)을 다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박쥐가 날개를 편 모양을 살펴보면, 조선조 양반의 외출복인 두루마기와 스님들의 장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가사 아래 장삼을 펴면,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편 것처럼 장삼의 팔에 덧댄 옷자락은 무릎아래까지 내려온다. 마치 박쥐의 손가락에 붙어있는 날개처럼 보인다. 어떤 민속학자에 의하면, 두루마기와 장삼이 박쥐의 날개를 편 모습에서 나왔다고 한다. 왜 박쥐의 모습이 경륜을 얻어 자기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를 이루어 백성들에게 교화를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유학자를 상징하는 선비들과 오탁악세를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어 불성을 이루려는 스님들의 의복의 원형(原型)이 되었을까? 그 것은 박쥐의 물성(物性)과 한계를 초월한 초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스님들도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박쥐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9



지옥과 극락

어제 남긴 말 한 마디가 지옥을 한 칸 지었다. 나를 떠난 말이 나를 가두었다. 내가 던진 말에 내가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지옥이 아니고 또 무엇일까. 오늘은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지옥을 짓는다. 입만 열면 지옥이 한 칸 씩 생긴다.

여름 안거가 끝났다. 치열했던 한 철 걸망에 담아 길을 나서는 스님의 뒷모습이 한가롭다. 내려놓기 위해 짊어졌던 그 걸망엔 무엇이 남고 또 무엇을 담았을까. 저 작은 걸망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걸으면 걷는대로 길이 담기고, 들으면 듣는대로 물음도 담길 것 같다. 담고 싶은 것 담고, 내려놓고 싶은 것 내려놓고, 짊어지고 싶을 때 짊어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스님의 걸망이 극락이지 싶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또 지옥을 짓고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오늘도 말 한마디로 지옥을 짓고, 누군가는 작은 걸망 속에 극락을 짊어진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22 조선 취미수초 선사의 '한천촌(寒泉村)'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네

野外橫微逕 (야외횡미경)
林邊有數家 (임변유수가)
兒童驅鳥雀 (아동구조작)
雨露潤桑麻 (우로윤상마)
物喜逢春景 (물희봉춘경)
人忘過歲華 (인망과세화)
何干帝力在 (하간제력재)
耕鑿自生涯 (경착자생애)

들판에 가로 난 작은 길
수풀가에 있는 몇 채의 집
아이는 참새를 쫓고
이슬비는 뽕과 삼나무를 살찌우네.
만물은 기쁘게 봄빛을 만나고
사람은 세월 가는 것도 잊네.
제왕의 힘이 있다한들
밭 갈고 우물 파는 나의 삶에 무슨 상관있으랴.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스님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에게서 자랐다. 어느 날 꿈속에 스님이 나타나 왜 이리 더니 오느냐는 소리를 세 번 듣고 출가했다. 이때가 13세였다. 스님은 타학문에 배타적인 시선을 '담장에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고 하며 불법의 홍포를 위해 유가의 경전을 토론하고 시문으로 수창했다. 스님의 명성을 듣고 계곡 장유(谿谷張維; 1587~1638)가 마련한 강석의 자리를 "도덕이 있는 곳에 산문도 다스려지고 높은 교화도 떨치는 것이지 도덕 없이 이름이나 훔치고 법규를 없애면 총림은 깨진다"해 물리쳤다. 임종할 때는 "아침에 길 떠나 저녁에 쉬는 것이지 길만 걷고 쉬지 않는 이가 없다. 나도 쉬려 한다. 너희는 각기 자기의 마음을 믿지 부질없이 밖으로 내닫지 말라"고 당부했다.

위의 시는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들판에 난 길을 따라 소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들판에 가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몇 채의 집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농촌풍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다음 씨앗 뿌려 놓은 밭에서 새 쫓는 아이와 아이에 이슬비에 더욱 윤택해지는 나무들을 올망졸망 묘사했다.

이 시골에서 사는 온갖 동식물과 사람은 즐거워 밤낮 가는 줄 모른다. 스님은 촌마을을 한 폭의 시로 그려내는 진정한 이유를 낮이면 밭 갈고 밤이면 잠자고 우물 파서 마신다는 태평성대를 노래한 격양가(擊壤歌)를 이끌어와 결구에 담아내었다. 참으로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詩中有畵), 시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詩中有話) 시이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재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모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펴줍니다.
3. 둥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형)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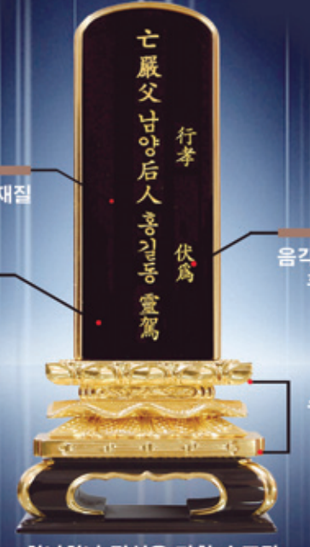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